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52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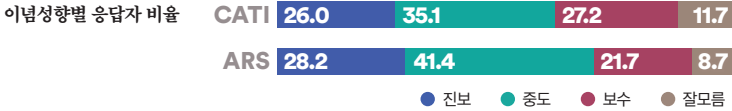
제67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18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18	100.0%	1,018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18	50.9	504	49.5	0.97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00	49.1	514	50.5	1.03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11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만18~29세	175	17.2	164	16.1	0.94					
응답률	10.8% [총 통화시도 9,397명]			30대	154	15.1	152	14.9	0.99					
조사기간	2023년 12월 22일 ~ 12월 23일(2일간)			40대	195	19.2	183	18.0	0.94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82	17.9	199	19.5	1.09					
				60대	174	17.1	174	17.1	1.00					
				70세 이상	138	13.6	146	14.3	1.06					
			지역	서울	193	19.0	190	18.7	0.98					
				인천·경기	324	31.8	326	32.0	1.01					
				대전·세종·충청	111	10.9	107	10.5	0.96					
				광주·전라	104	10.2	98	9.6	0.94					
				대구·경북	100	9.8	99	9.7	0.99					
				부산·울산·경남	147	14.4	153	15.0	1.04					
				강원·제주	39	3.8	45	4.4	1.15					

ARS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2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21	52.0	498	49.7	0.96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81	48.0	504	50.3	1.05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11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만18~29세	117	11.7	161	16.1	1.38					
응답률	2.7% [총 통화시도 37,655명]			30대	138	13.8	149	14.9	1.08					
조사기간	2023년 12월 22일 ~ 12월 23일(2일간)			40대	192	19.2	180	18.0	0.94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4	196	19.6	0.92					
				60대	189	18.9	173	17.3	0.92					
				70세 이상	152	15.2	143	14.3	0.94					
			지역	서울	197	19.7	187	18.7	0.95					
				인천·경기	326	32.5	320	31.9	0.98					
				대전·세종·충청	108	10.8	106	10.6	0.98					
				광주·전라	97	9.7	98	9.8	1.01					
				대구·경북	93	9.3	98	9.8	1.05					
				부산·울산·경남	143	14.3	150	15.0	1.05					
				강원·제주	38	3.8	43	4.3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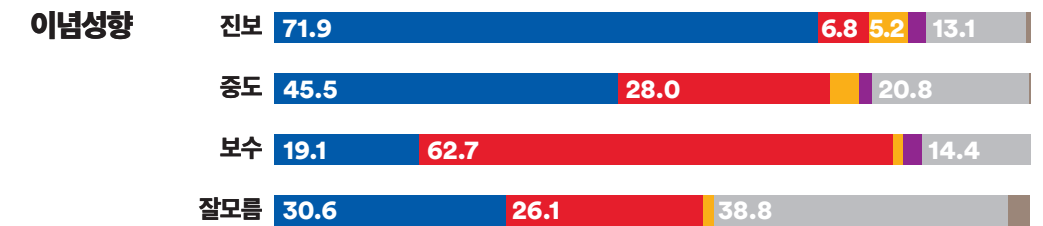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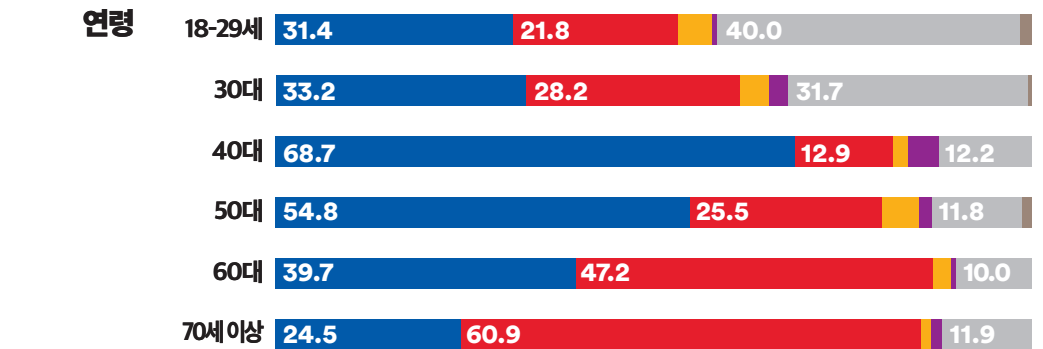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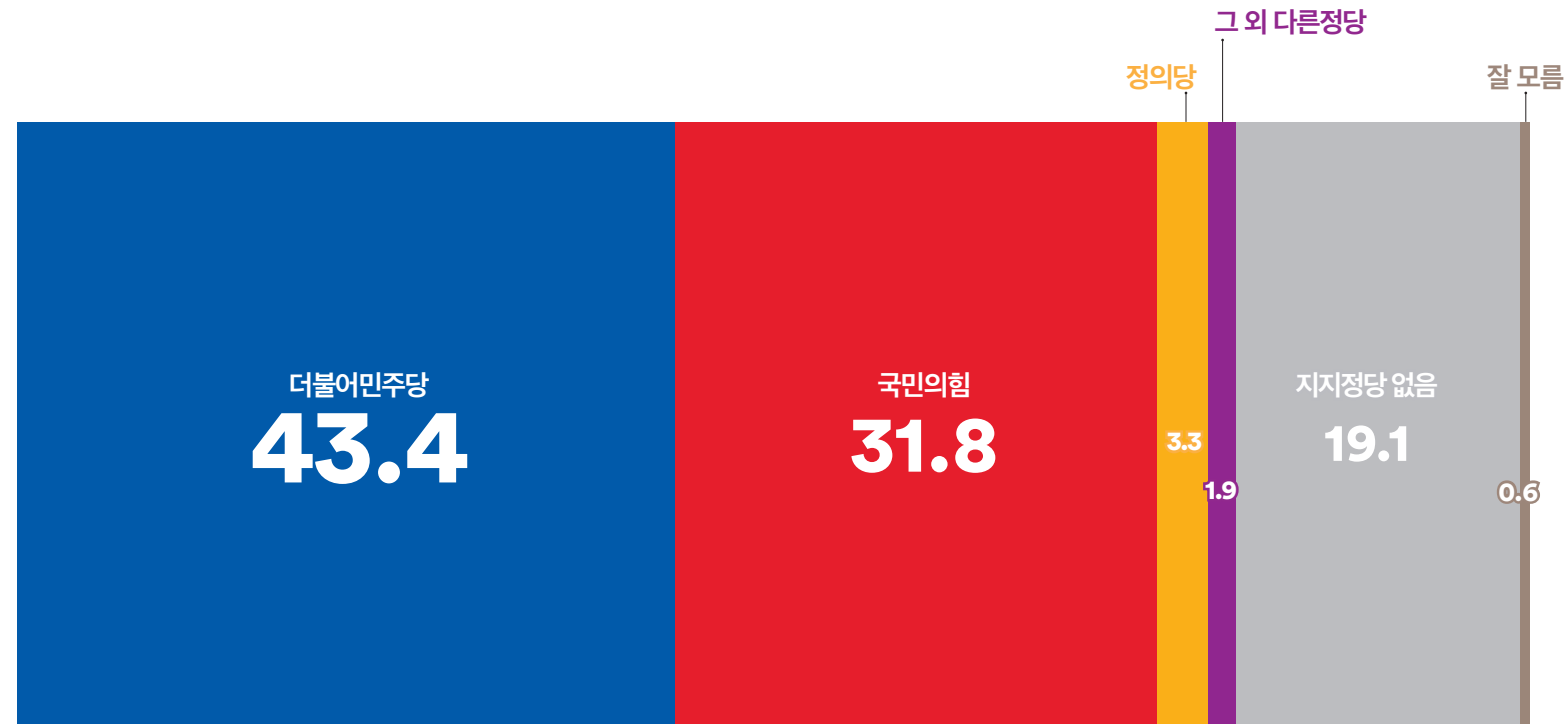
성별	비율
남성	52.0%
여성	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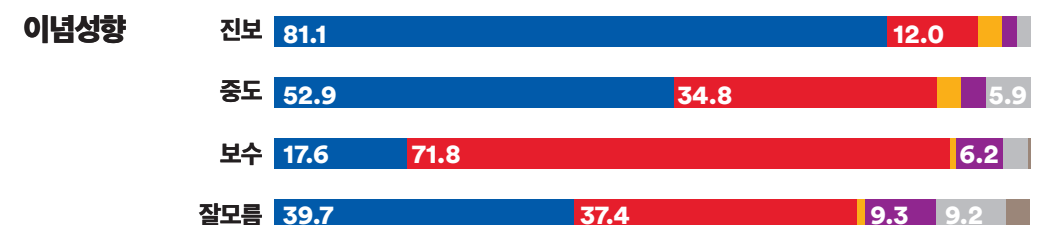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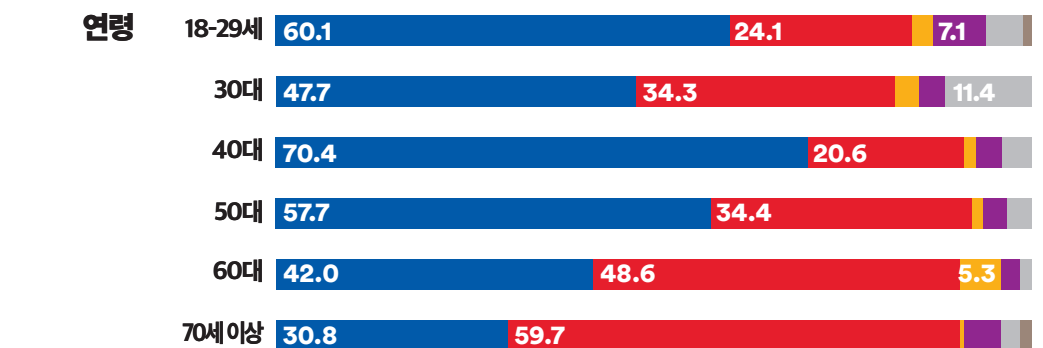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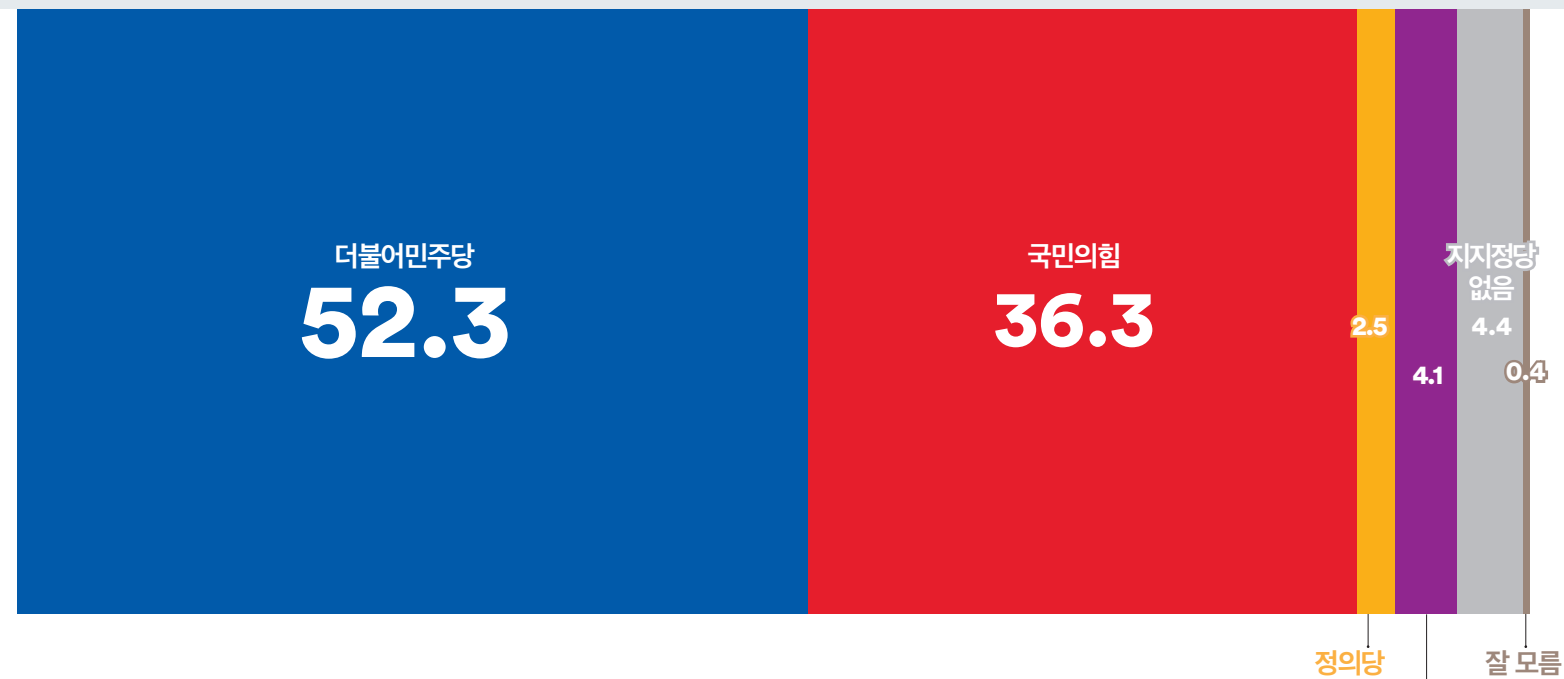
지역	비율
서울	19.7%
인천·경기	32.5%
대전·세종·충청	10.8%
광주·전라	9.3%
대구·경북	9.7%
부산·울산·경남	14.3%
강원·제주	3.8%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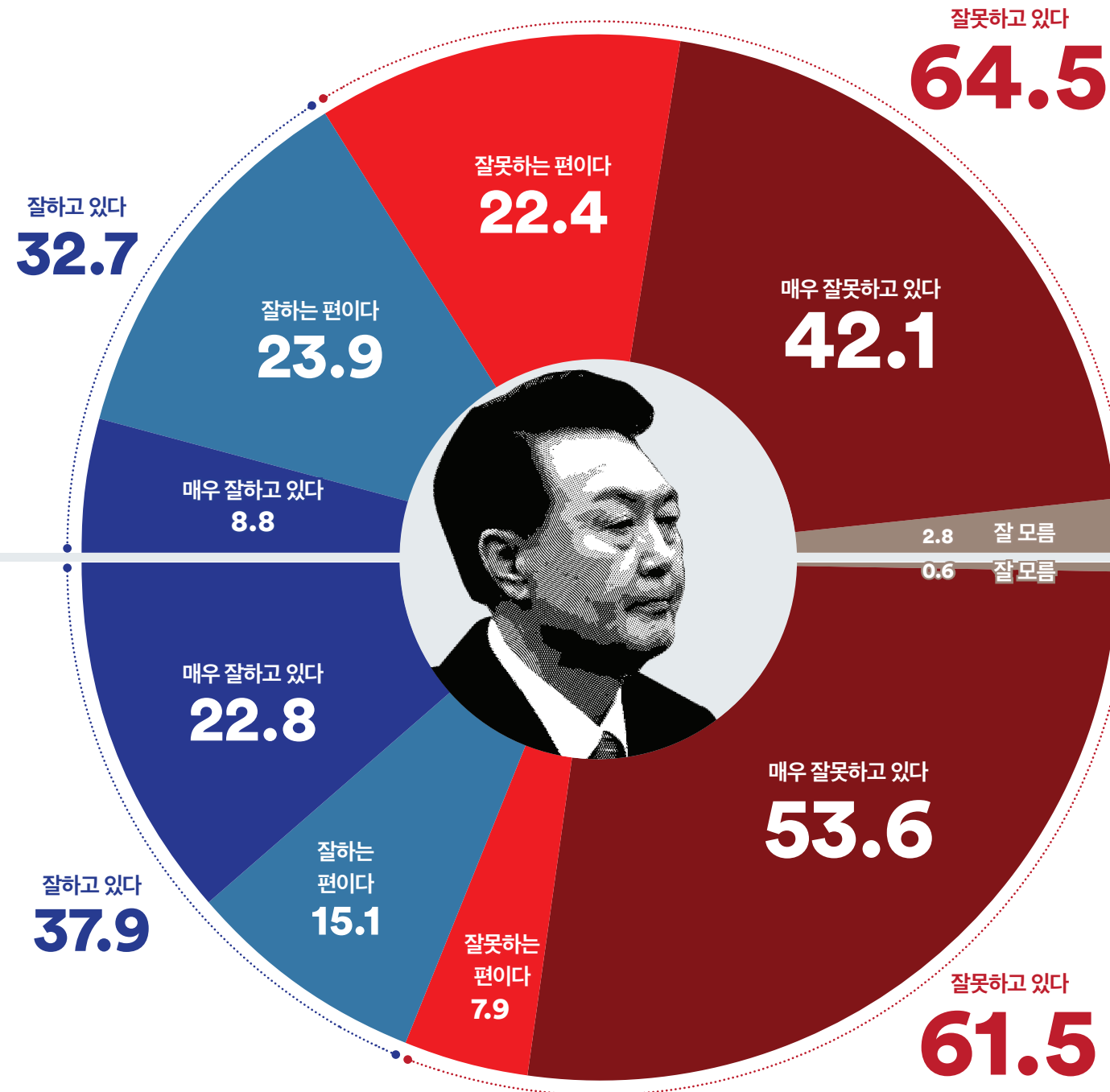


지난 51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4%p 상승, '국민의힘' 0.3%p 상승 (격차 11.6%p)
 지난 66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1%p 상승, '국민의힘' 변동 없음 (격차 16.0%p)
 두 조사 모두 경인권,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TK권에서는 '국민의힘' CATI 우세, ARS 앞섬
 40·50대,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및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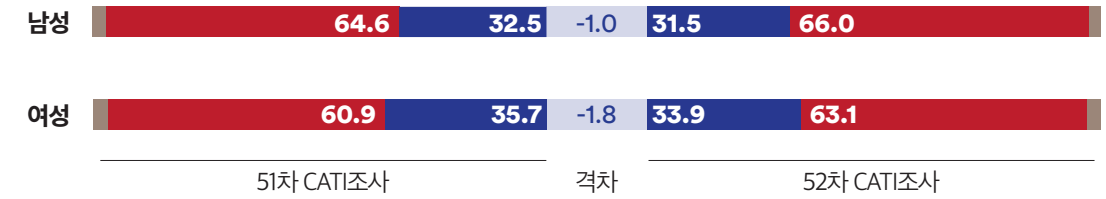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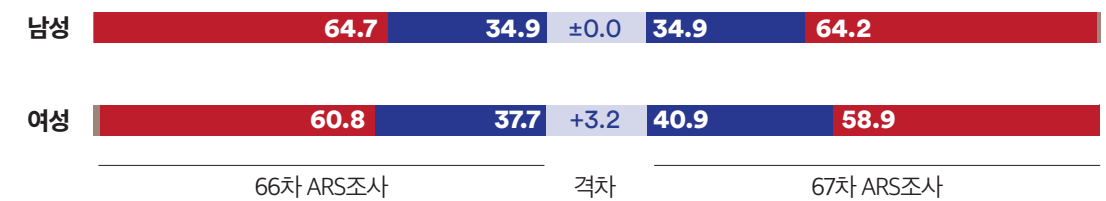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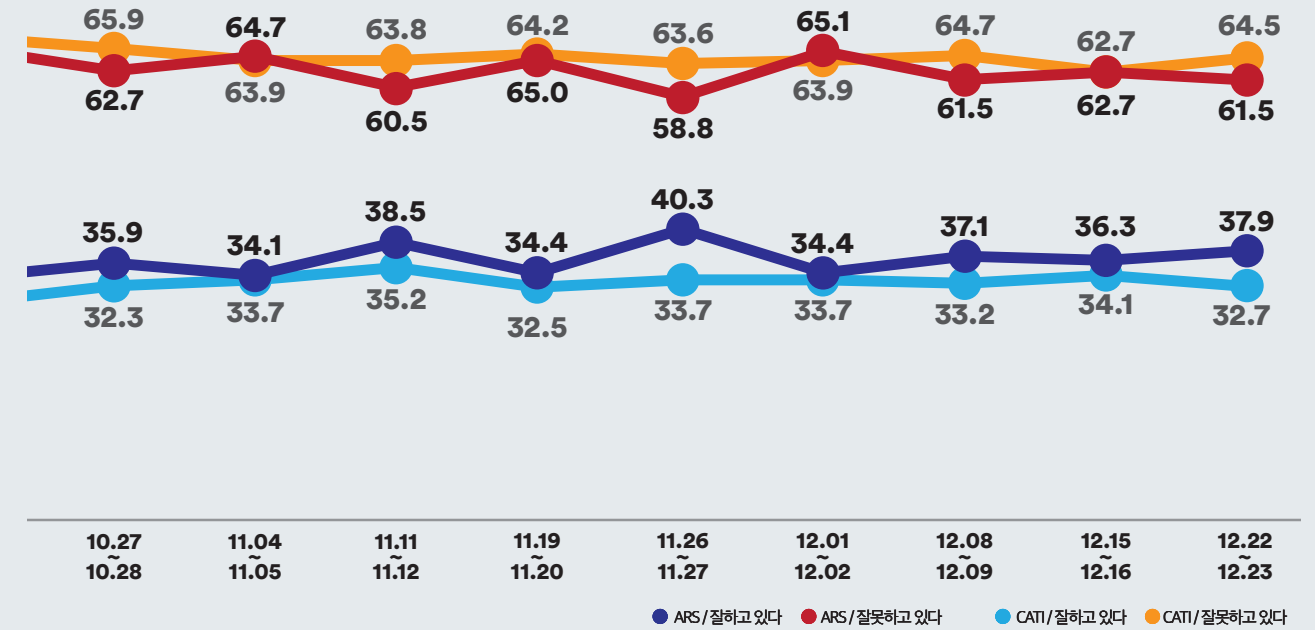
CATI



ARS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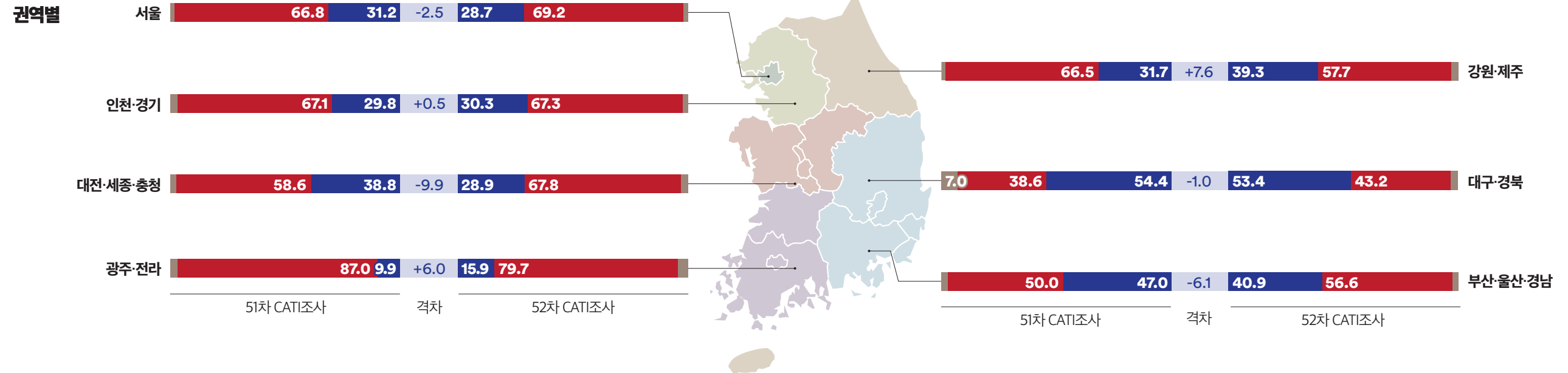


지난 51차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1.4%p 하락, '부정'평가 1.8%p 상승 (격차 31.8%p)
 지난 66차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1.6%p 상승, '부정'평가 1.2%p 하락 (격차 23.6%p)
 중도층의 긍·부정 평가 격차는 CATI 조사에서 46.6%p(전주 41.8%p), ARS 조사에서 28.3%p(전주 40.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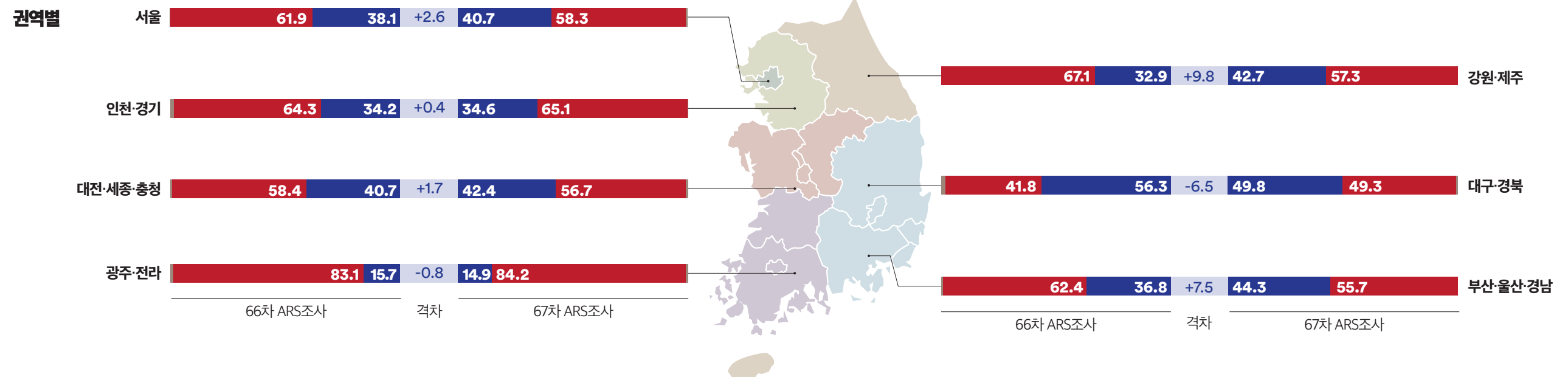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는 편이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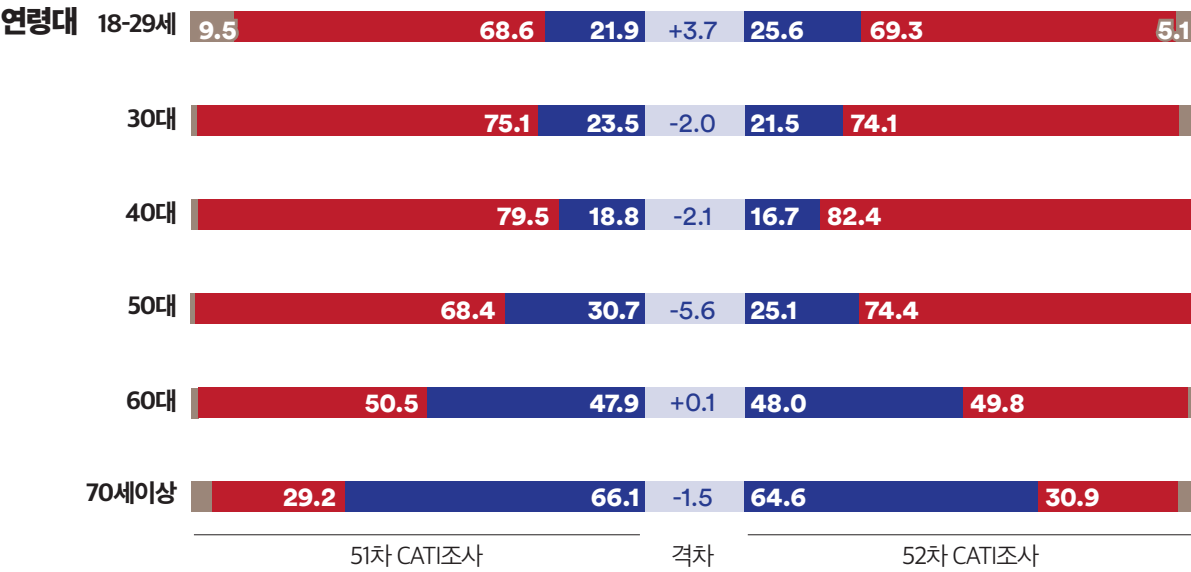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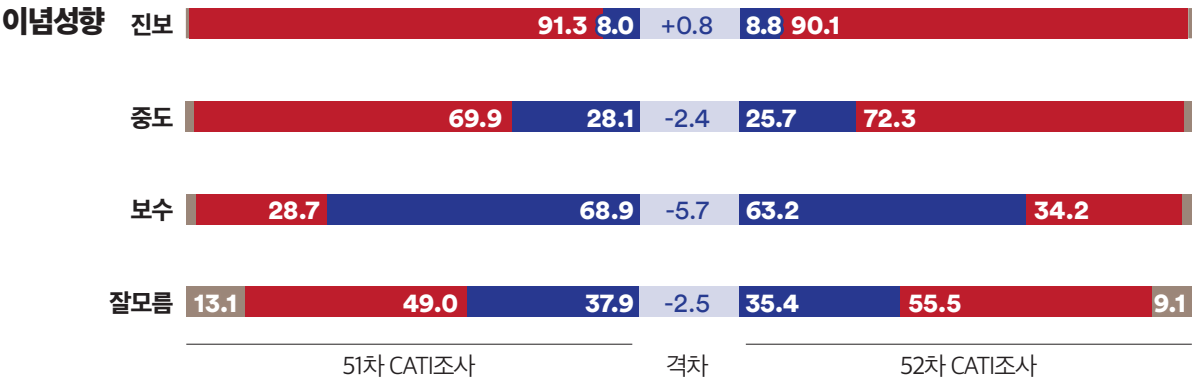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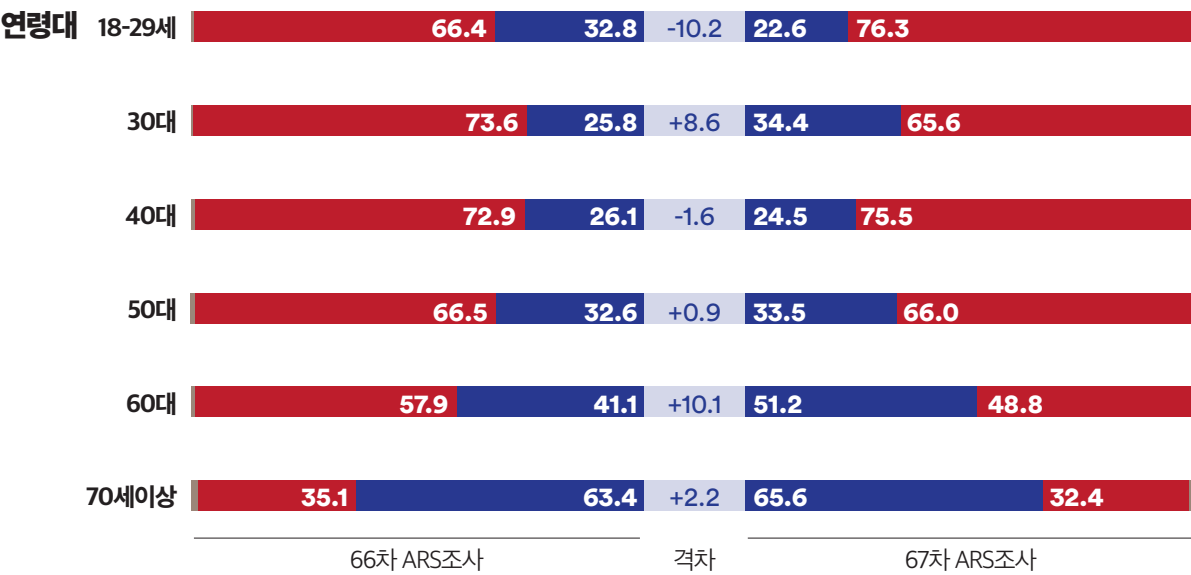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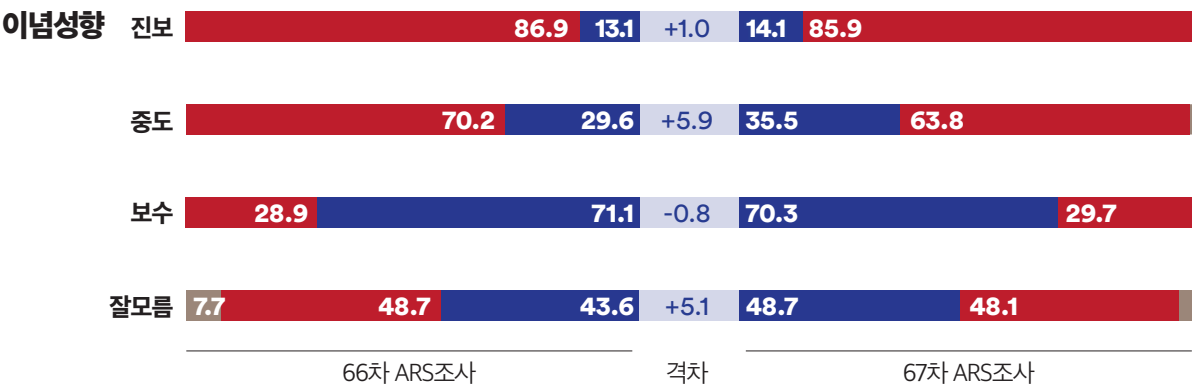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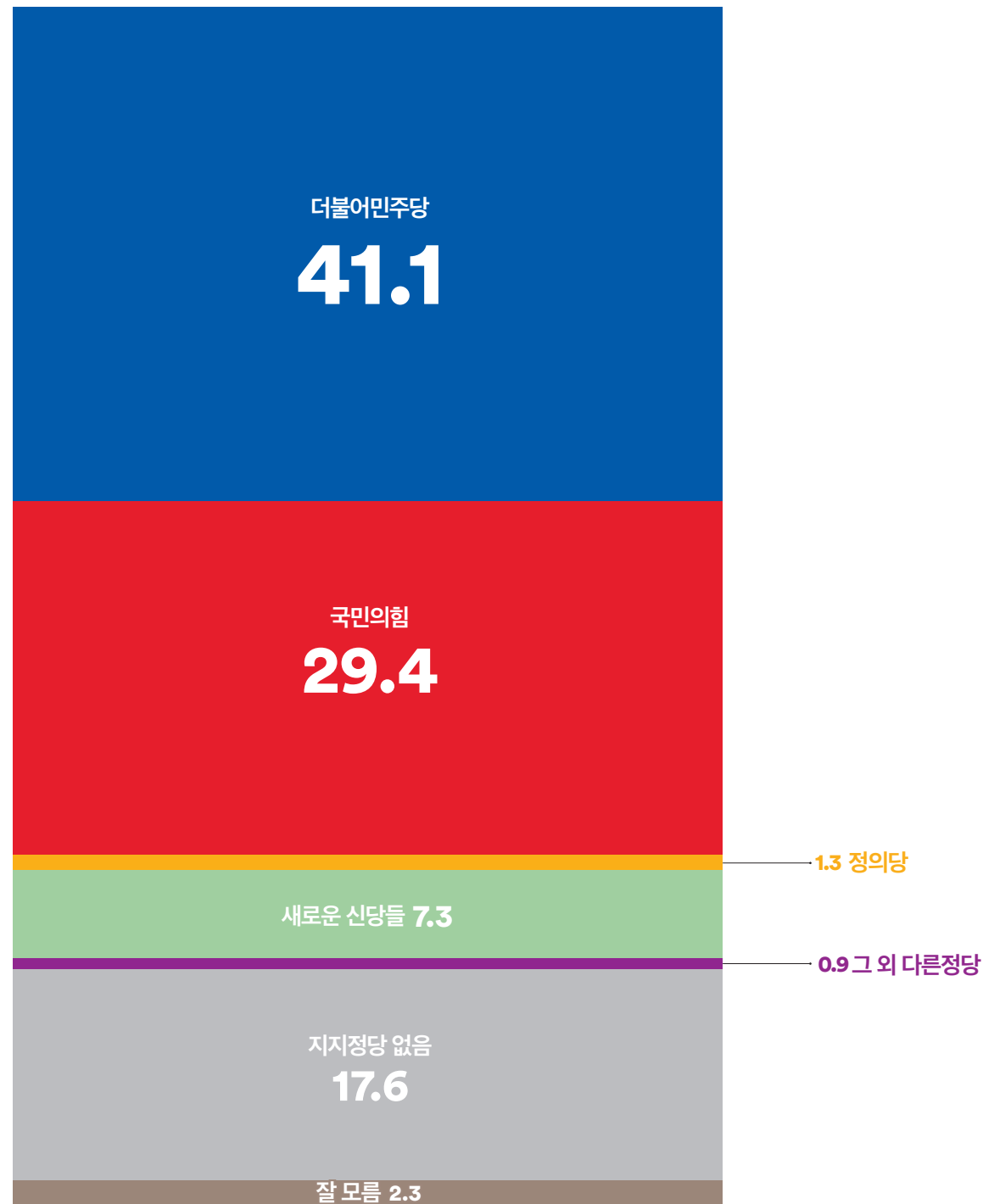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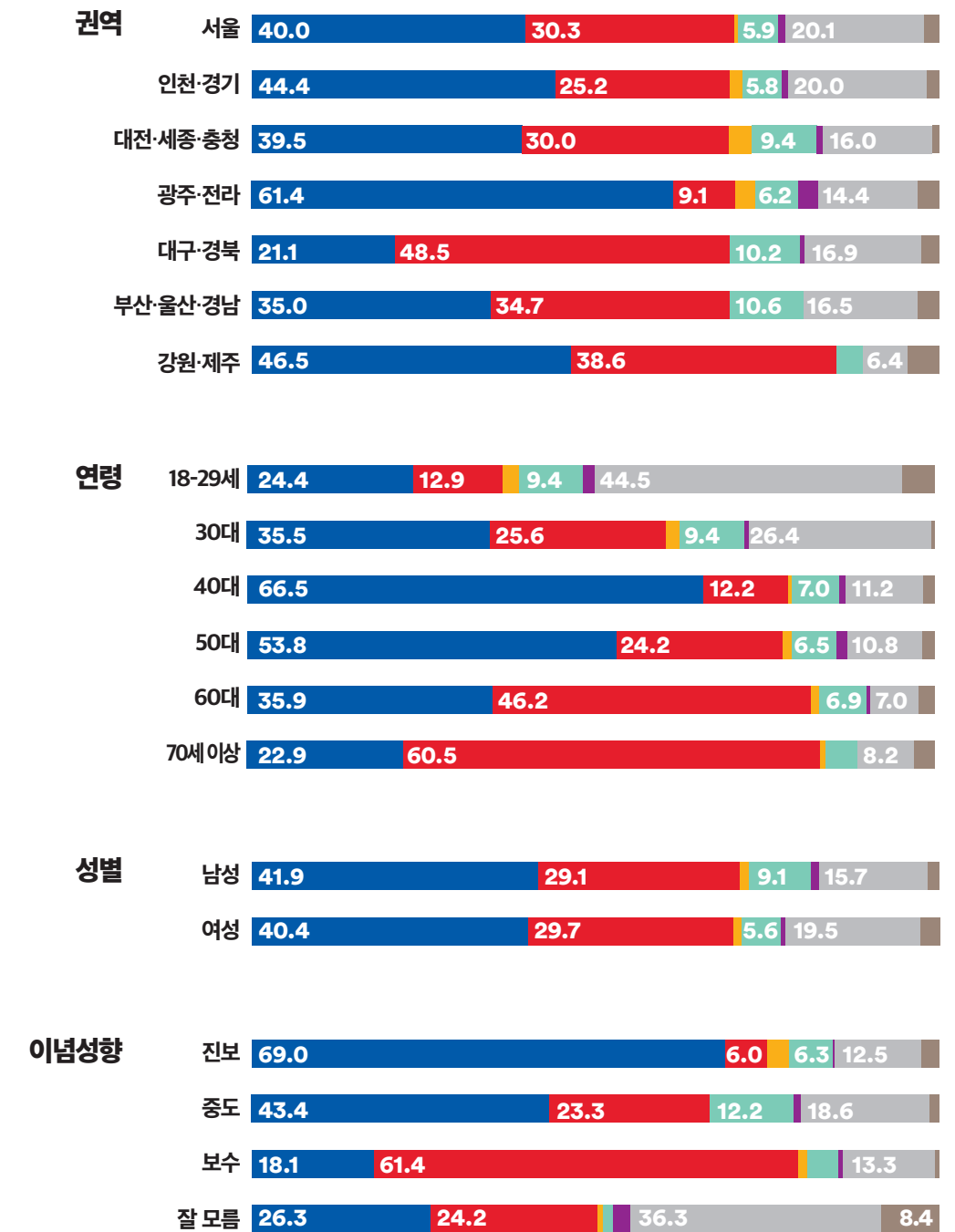
Q.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격차 11.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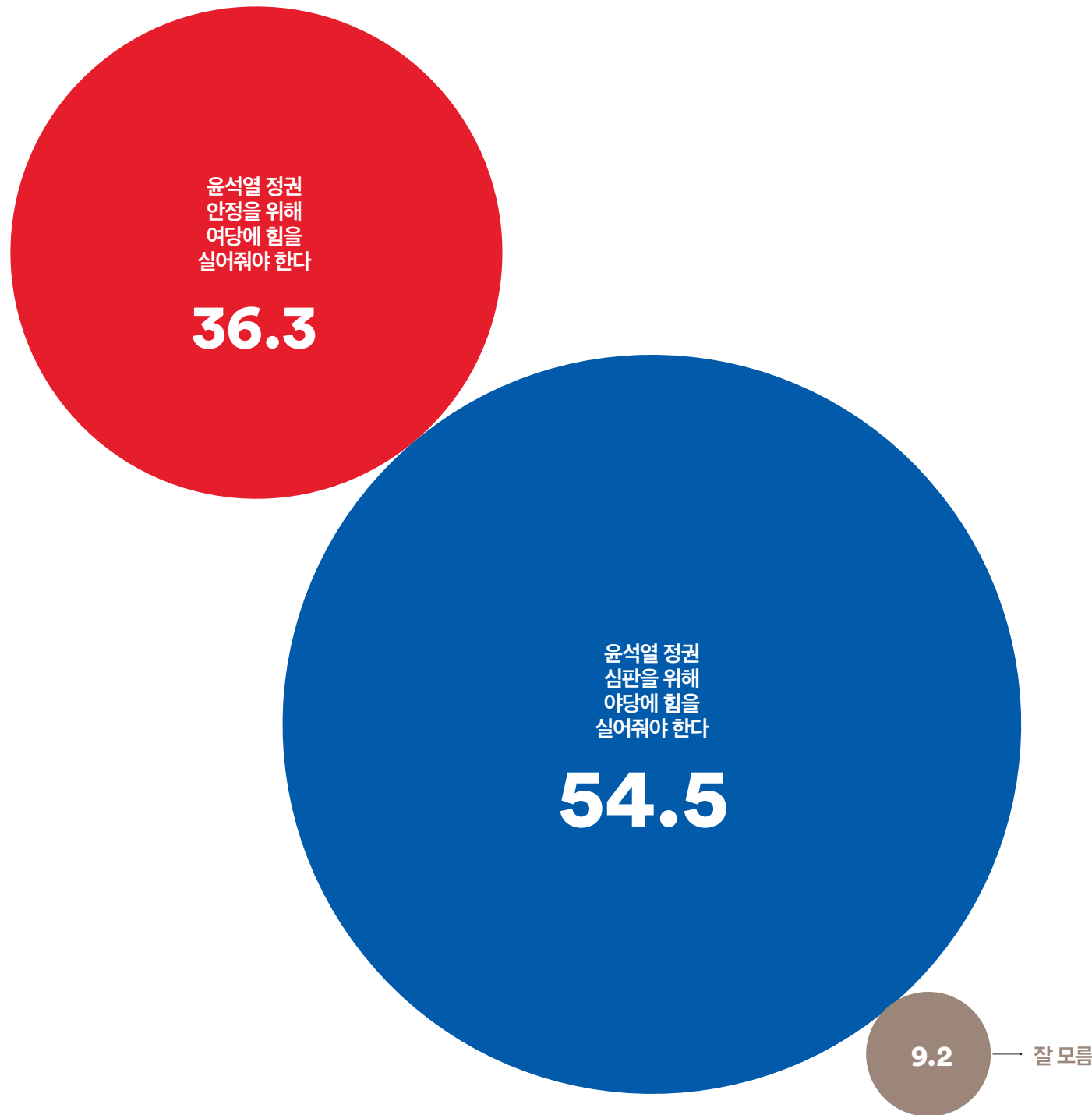
TK와 PK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권역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경인권, 호남권 우세)

남·녀 모두, 중도층, 50대 이하는 ‘더불어민주당’,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 격차 20.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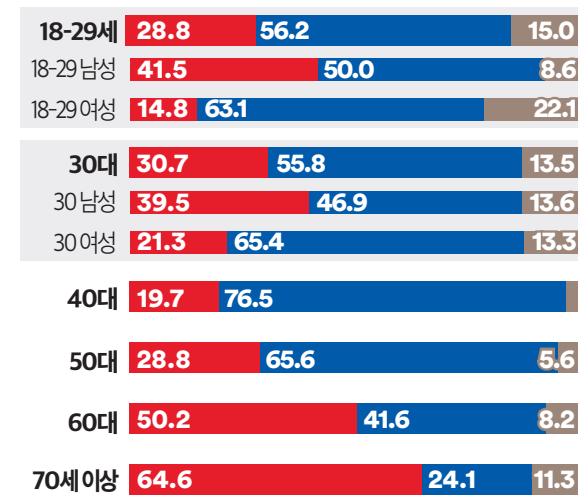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새로운 신당들
 ■ 그 외 다른 정당
 ■ 없음
 ■ 잘 모름

Q. 차기 총선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보기는 순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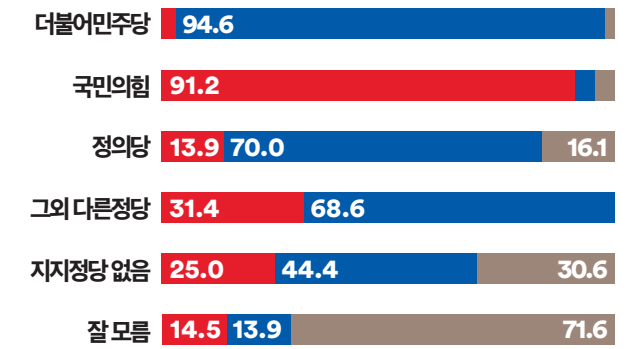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써줘야 한다'고 응답, 우세 (격차 18.2%p)
수도권과 충청, 호남 및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정권 심판론', TK 및 70세 이상 응답층은 '정권 안정론'이 우세
무당층 및 중도층에서도 '정권 심판론' 우세 (중도층 격차 25.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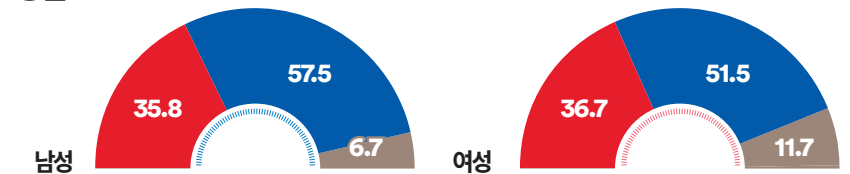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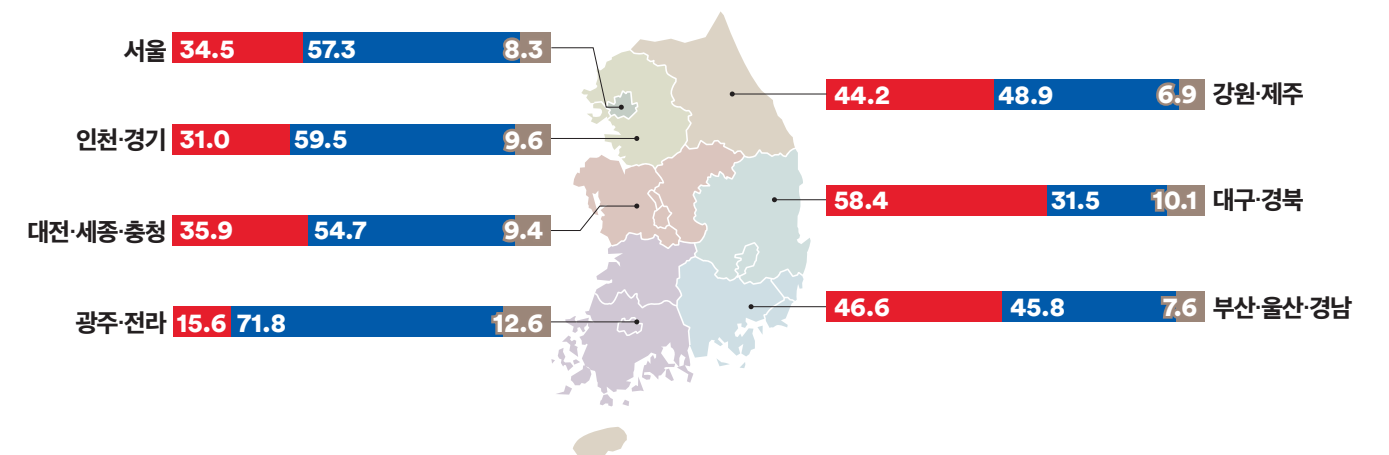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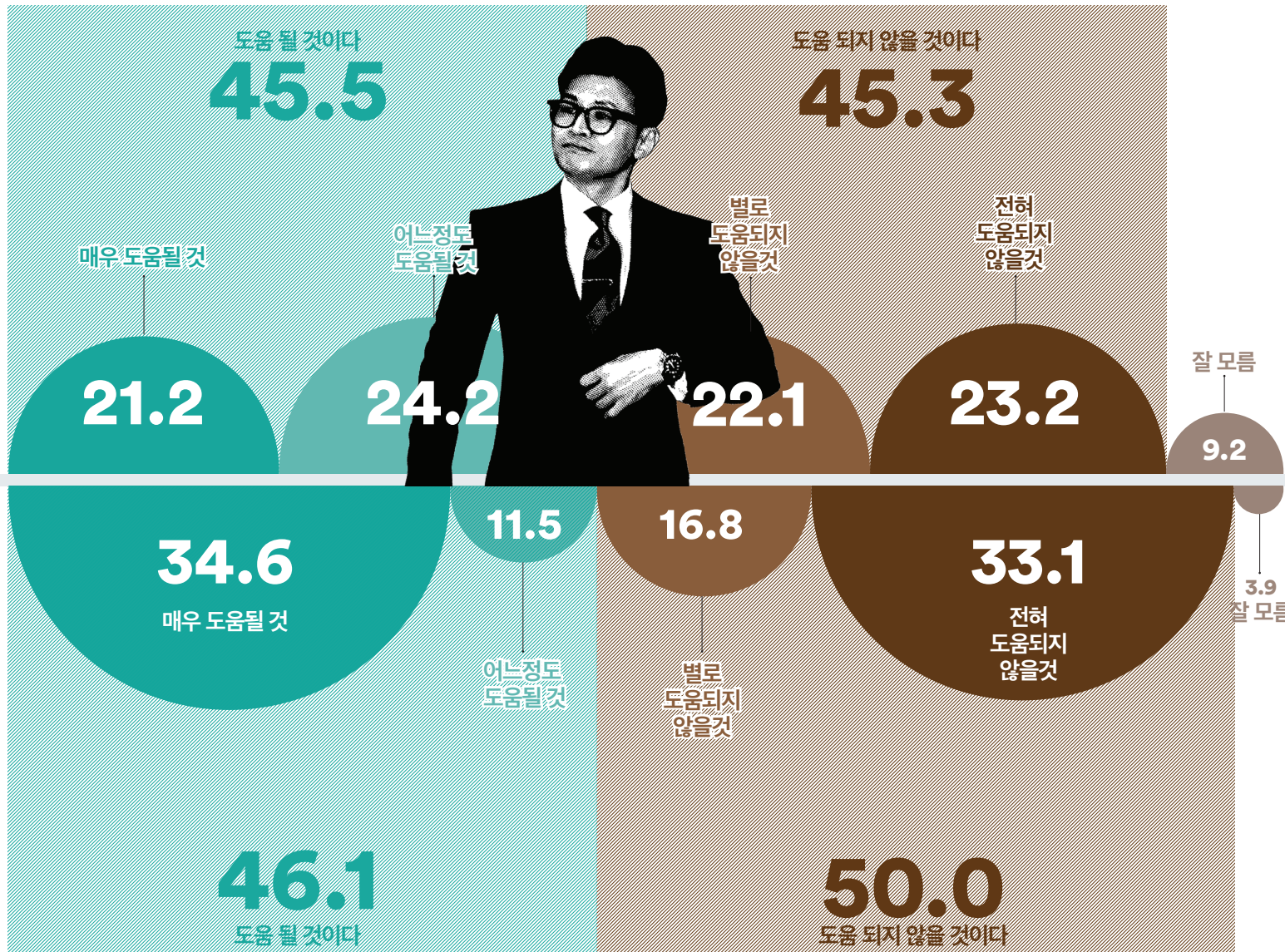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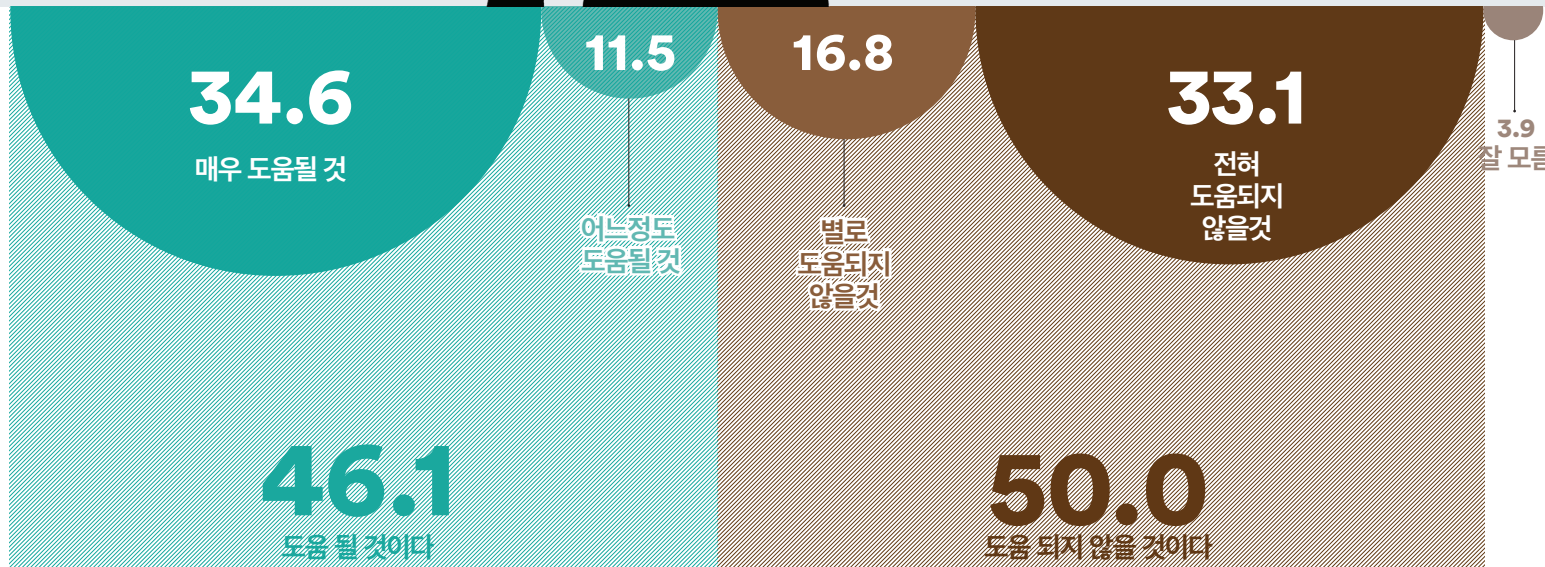
여당에 힘을 써줘야 한다 야당에 힘을 써줘야 한다 모르겠다

Q.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얼마나 도움될 것이라 보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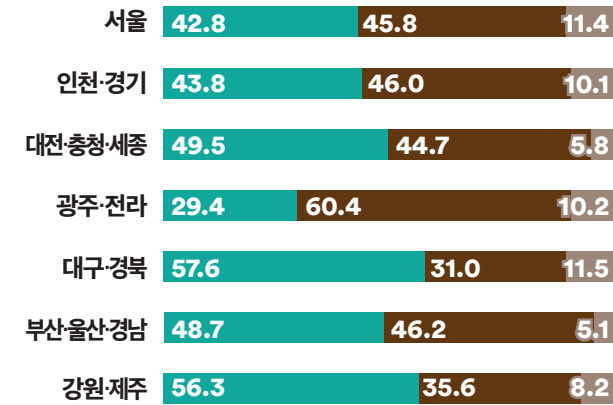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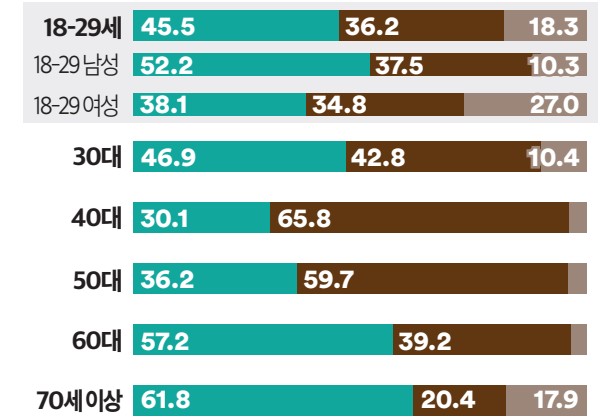


CATI 조사는 두 응답이 오차범위 내 초박빙, ARS 조사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섬
 40·50대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한 반면, 60대 이상은 '도움될 것'이란 응답 우세
 무당층은 CATI 조사에서 0.1%p차의 초박빙, ARS 조사에서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8.1%p 앞섬
 중도층은 두 조사 모두 '도움 되지 않을 것' 응답이 4.5%p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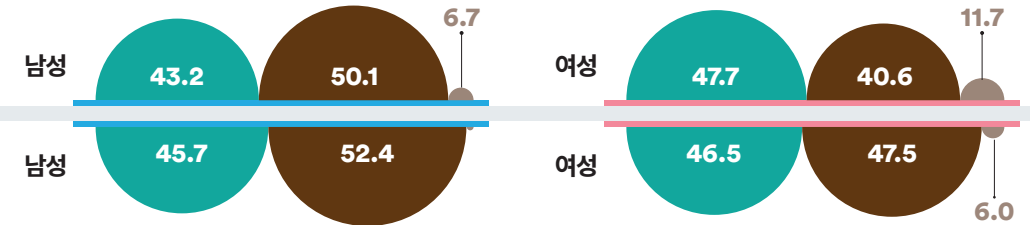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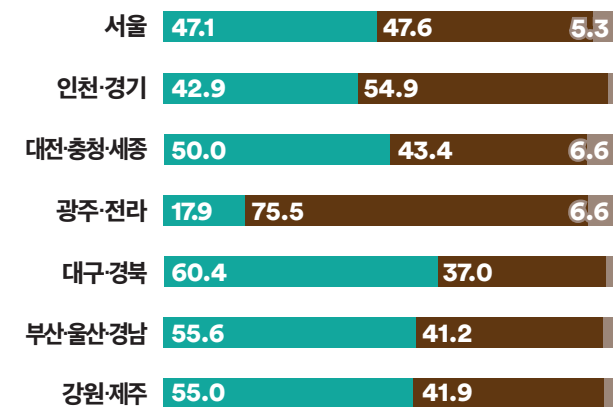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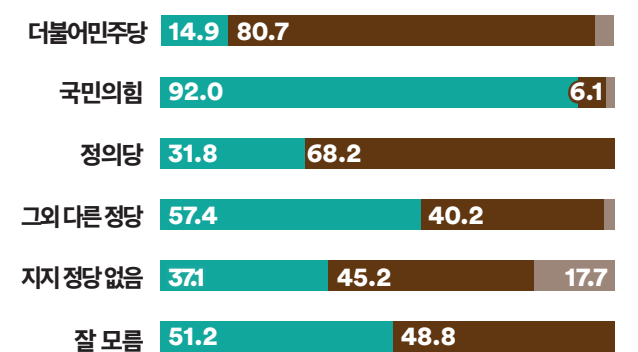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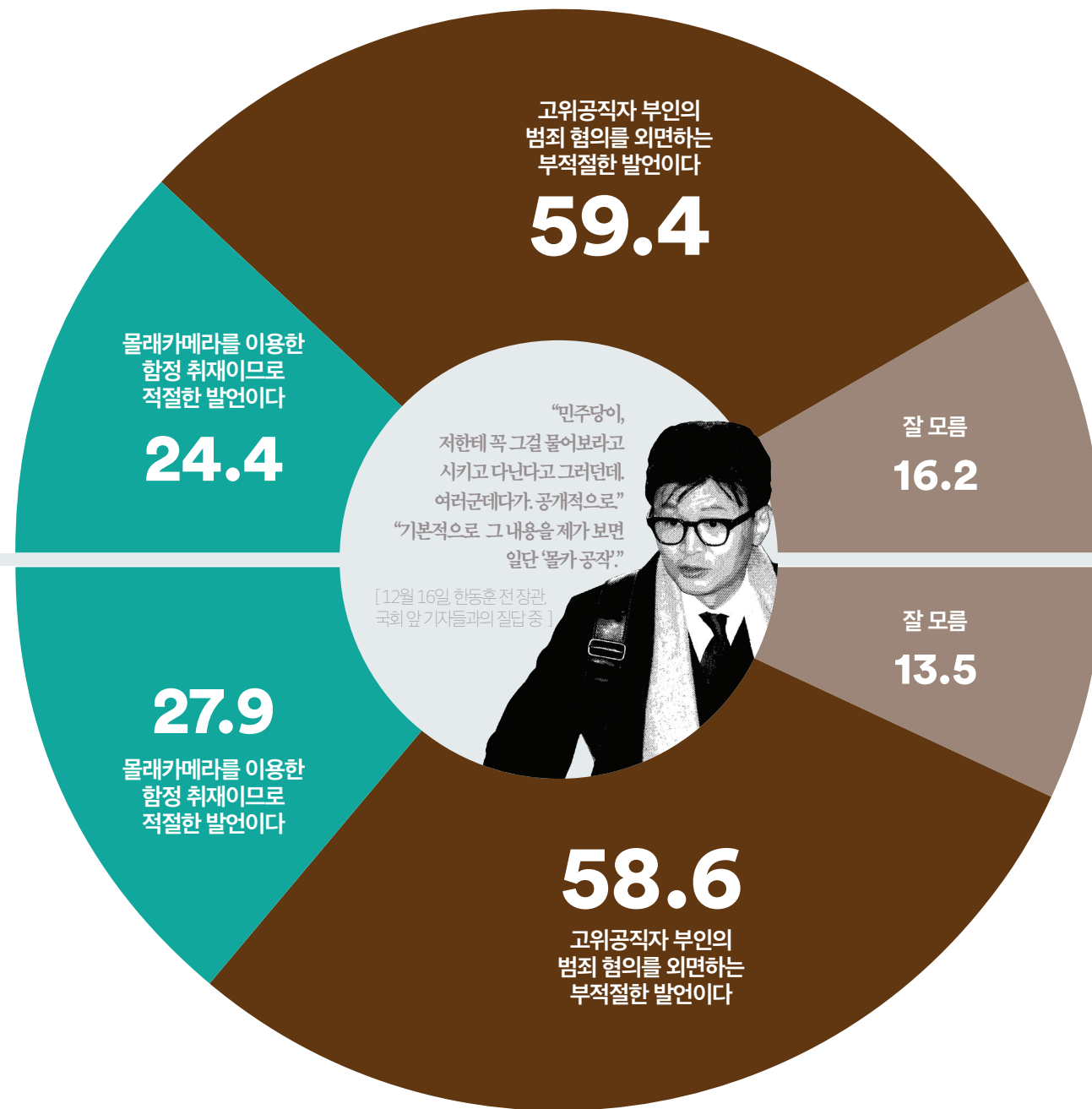
도움될 것 도움되지 않을 것 모르겠다



Q.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를 ‘몰카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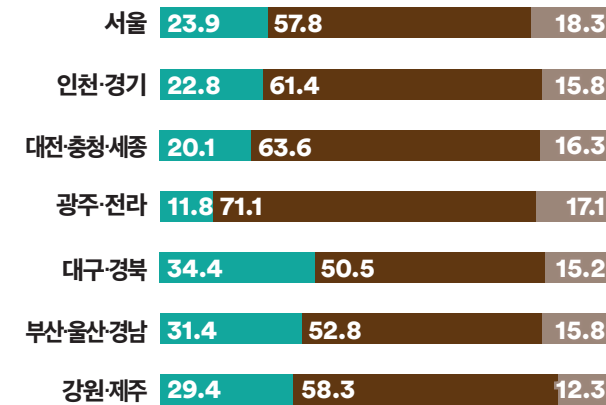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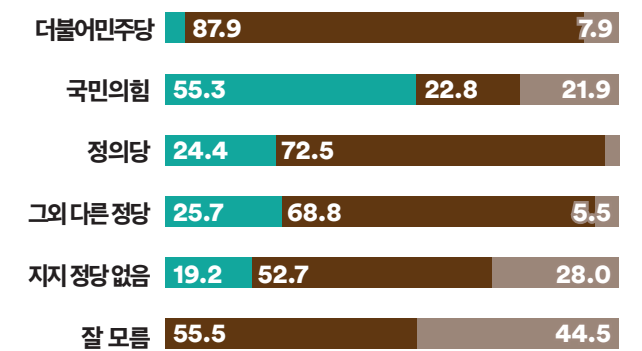


두 조사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는 ‘한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
ARS 조사의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하면, 두 조사의 나머지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란 응답이 앞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CATI 55.3%, ARS 65.0%가 ‘적절한 발언’이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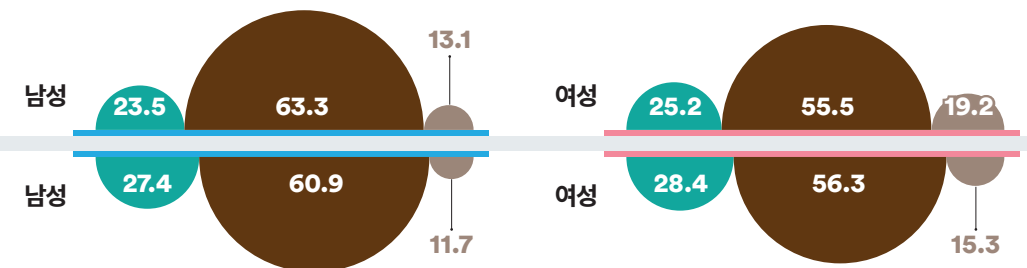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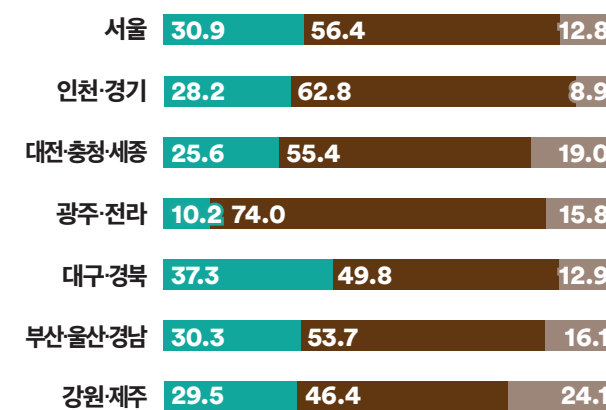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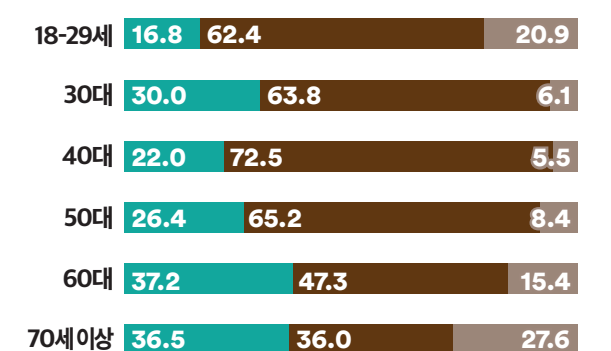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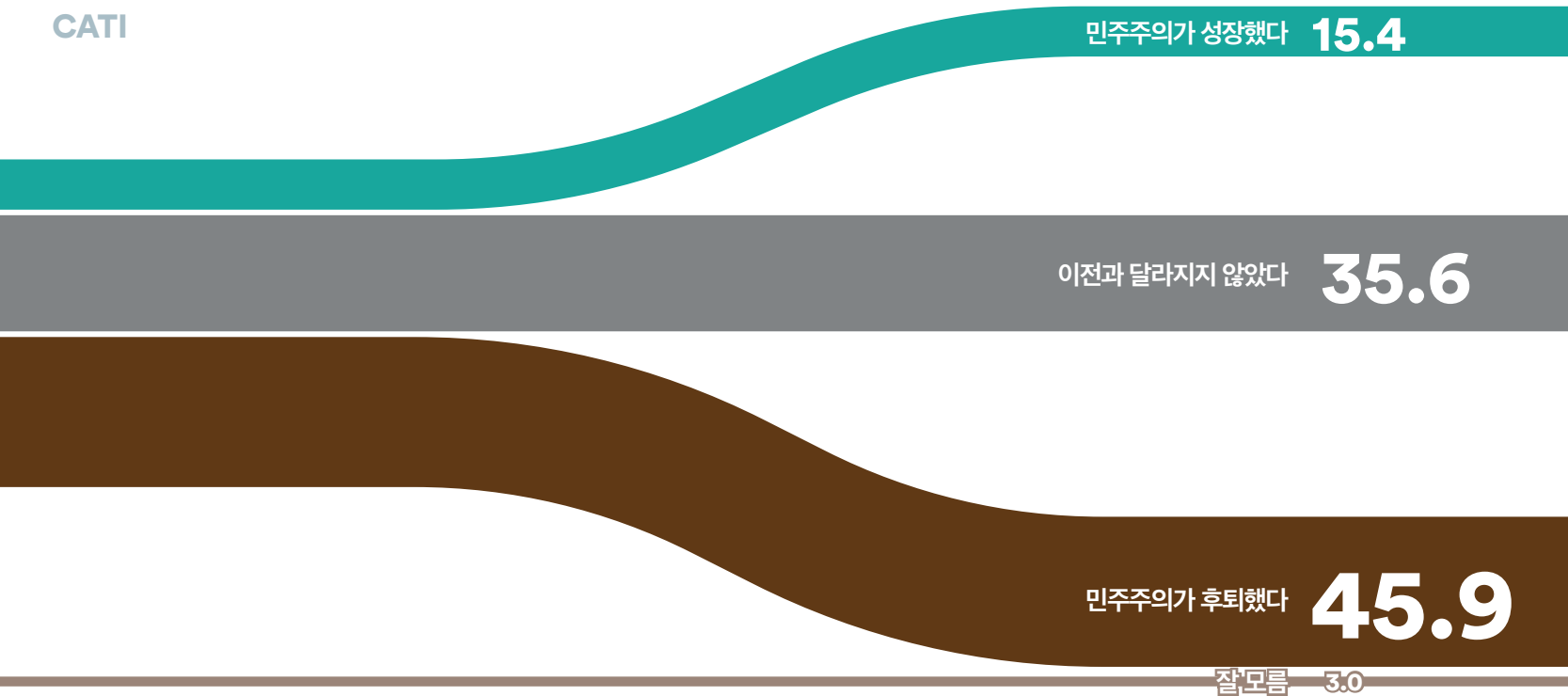


적절한 발언 부적절한 발언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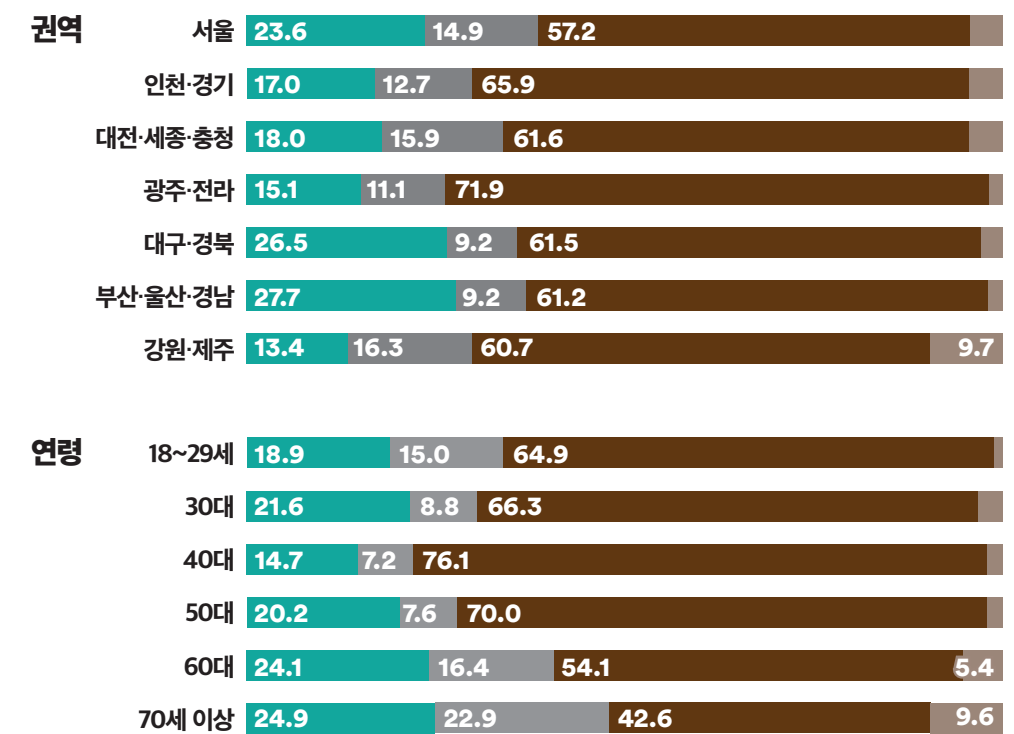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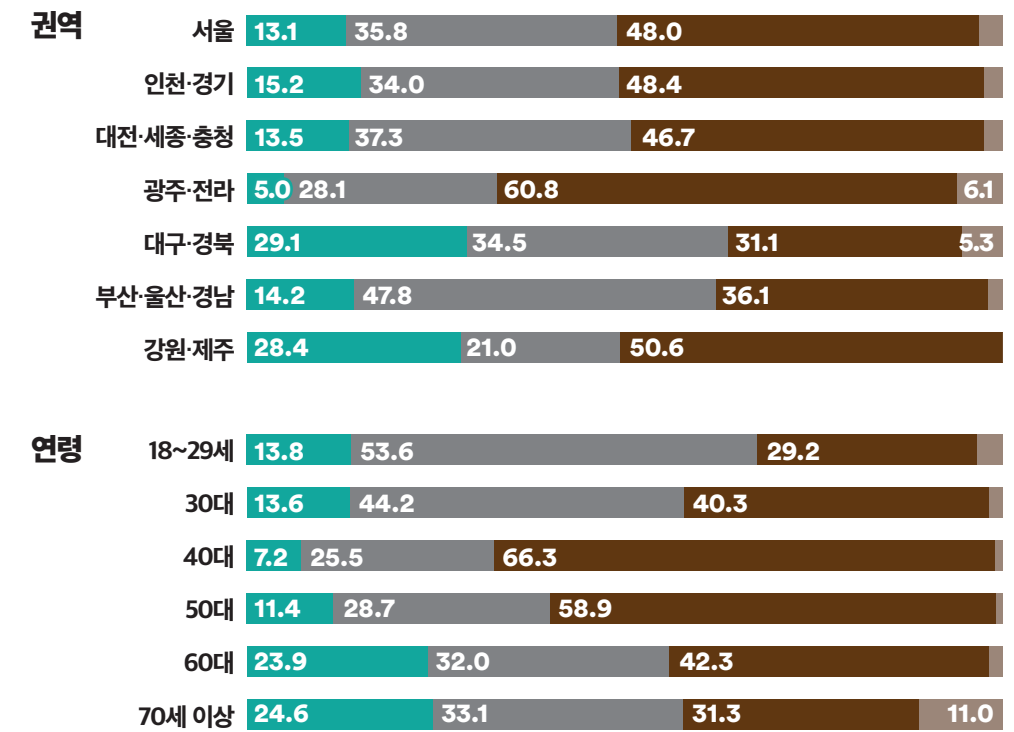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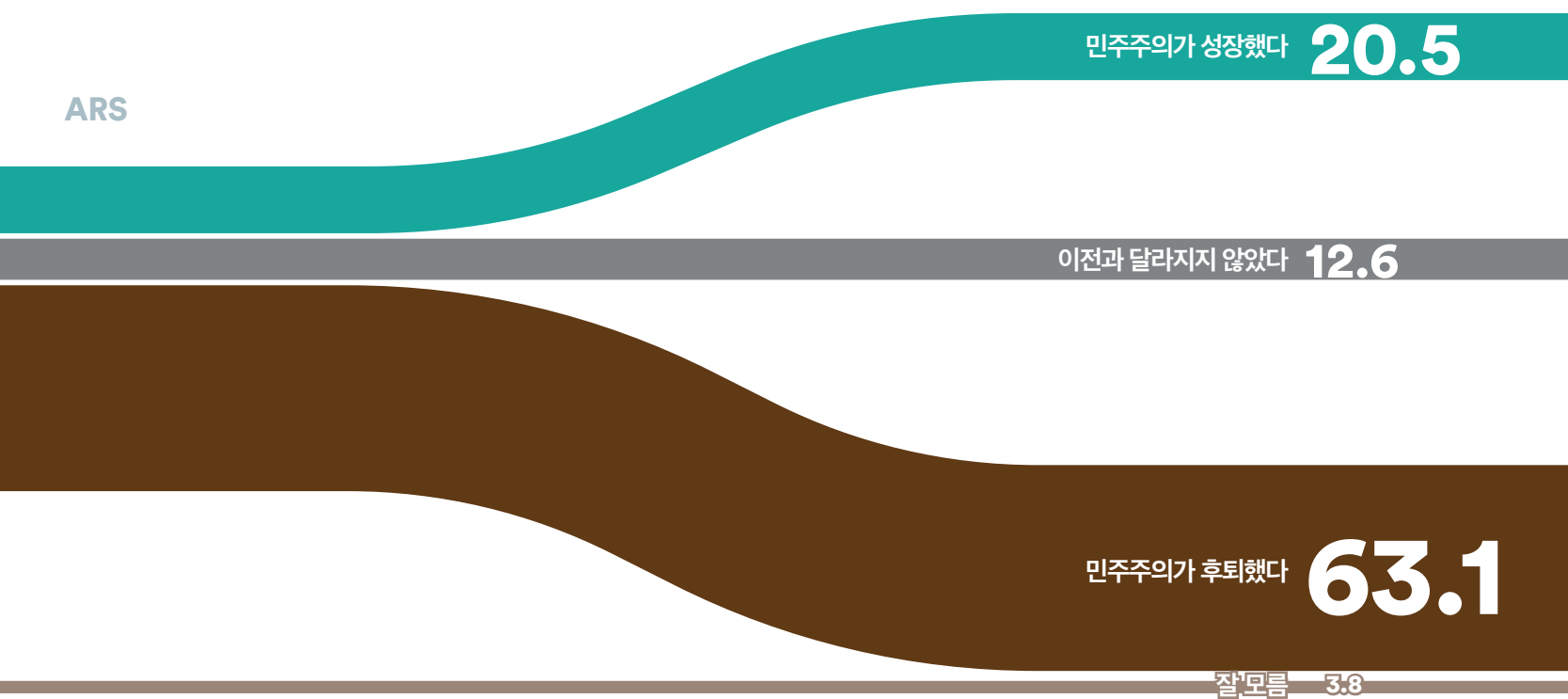


Q.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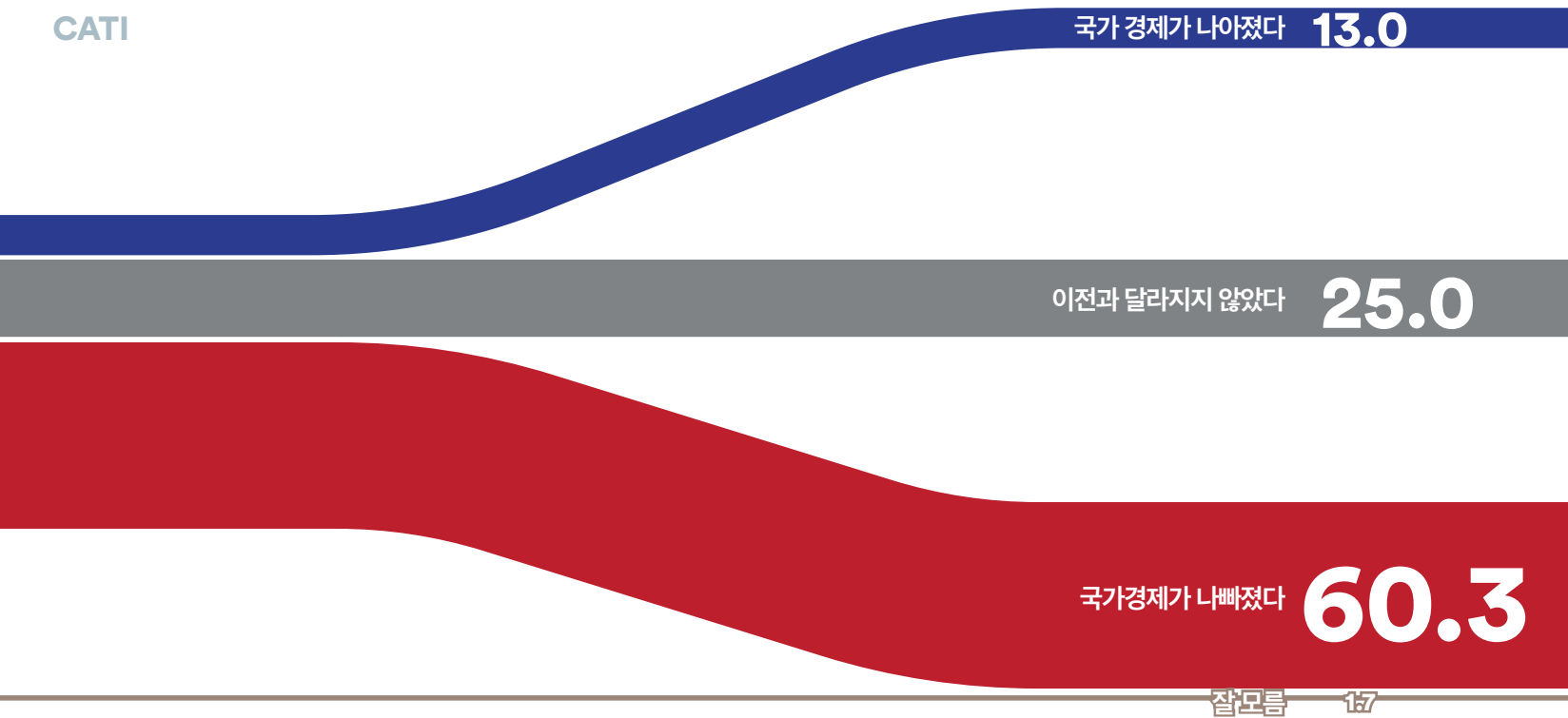


민주주의가 성장했다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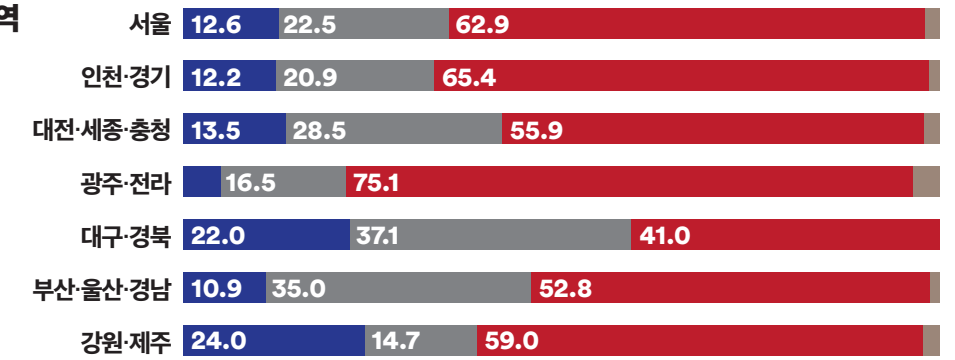


Q. 지난 1년간 우리 국가 경제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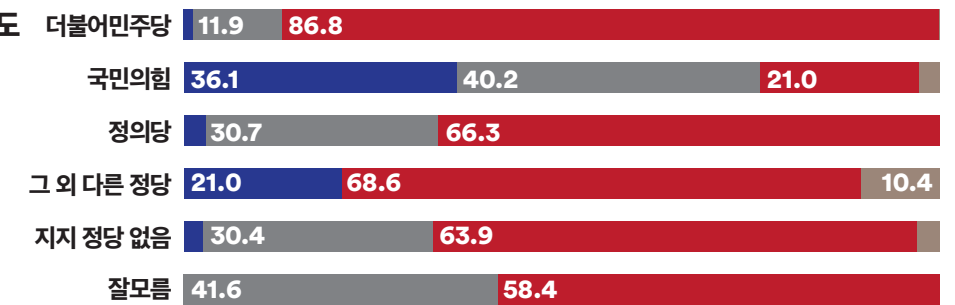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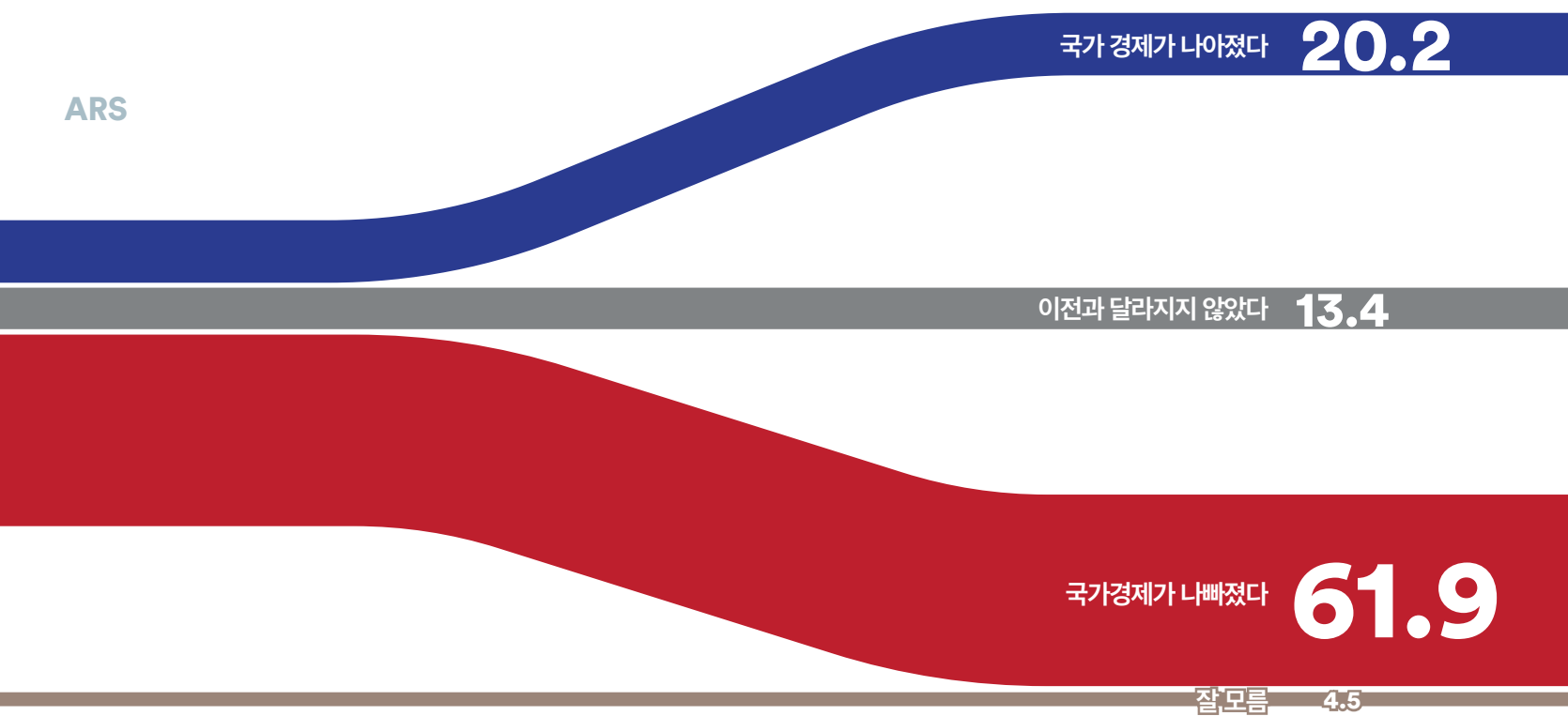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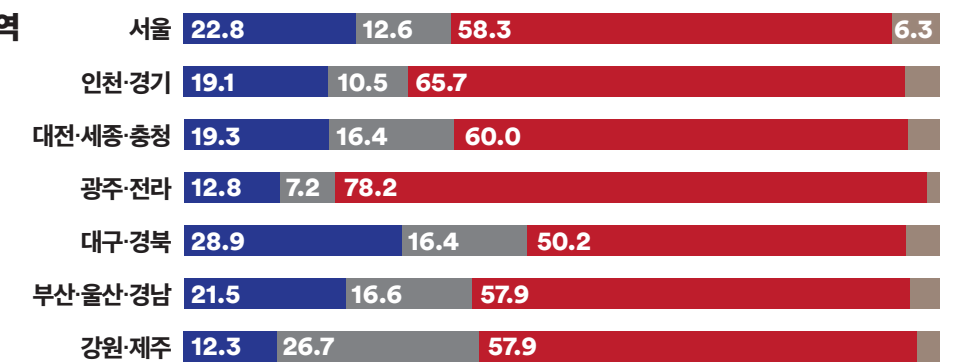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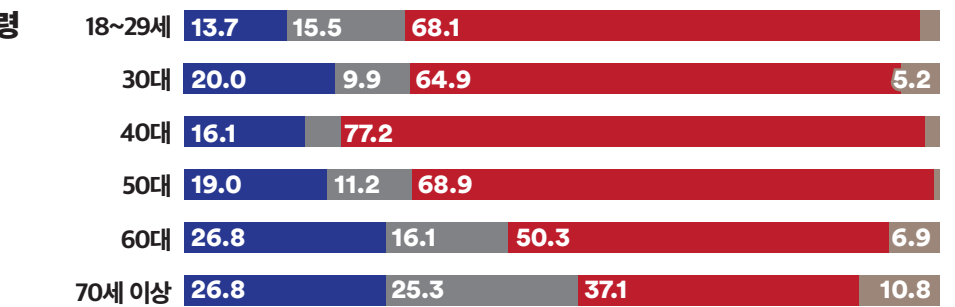
ARS



권역



연령



■ 국가경제가 나아졌다
 ■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 국가경제가 나빠졌다
 ■ 모르겠다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312_08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